

2023. 10. 11.(수)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10월 10일 오전 12: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체육정책과장

정현석

02-2133-2675

전문체육팀장

정경옥

02-2133-2688

위탁사업부장

송동준

02-490-2709

위탁사업팀장

서희정

02-490-2720

오세훈 시장,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초청 간담회 개최

- 서울시청 소속 펜싱 윤지수, 브레이킹 김현우 등 22명 간담회 초청
- 대회 기간 내내 서울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수단 모두를 격려
- 오시장 “24년 파리올림픽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

☐ 오세훈 시장은 10.10.(화) 12시 서울시청에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직장운동경기부)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은 총 11종목 22명이며, 이중 10개의 메달(금2, 은6, 동2)을 획득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8월 28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국가대표 출정식’에 참여했던 이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단 3인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시는 ‘이스포츠 국가대표 공식 파트너 도시’ 자격으로 한국e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서울시는 메달의 획득과는 상관없이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단이 대회 내내 서울시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남자 체조의 간판스타 김한솔은 완벽한 자세로 높은 점수를 얻으며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이어 마루운동 종목에서 금메달 2연패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 여자 펜싱에서는 윤지수가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지수는 프로야구 롯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윤학길 투수의 딸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특히 윤지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회 중 사용한 펜싱 칼에 사인하여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감동을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시청 최연소 선수(19세)이며 여자 스포츠 클라이밍의 유망주 서채현 선수는 기상 악천후로 결선이 취소되며 아쉽게 은메달을 수상했다.
-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한 여자 핸드볼(송지영, 조수연, 정진희, 윤예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 끝에 은메달을 얻었으며, 조별 토너먼트에서 3전 전승을 기록했던 여자 축구팀(박은선, 류지수)은 8강에서 고배를 마셨다.
-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 눈물을 흘린 여자 태권도 이다빈은 태권도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며 24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 지난 9월 서울시청에서 창단한 브레이킹팀 김현우·전지에는 아시안게임 첫 정식종목으로 선보인 브레이킹 종목에 참가하여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세계를 대표하는 비보이들이 이들은 향후 각종 대회에서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편 서울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스포츠 분야에서는 금메달2, 은메달1, 동메달1의 쾌거를 이뤄 이스포츠 강국의 자존심을 재확인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계속 높여나가기 위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힘들고 지친 순간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감동받는 서울시민들의 응원을 생각해달라’고 하였으며 ‘서울시는 비인기종목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향한 우리 모두의 멈추지 않을 도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3. 10. 10.(화) 12:00~13:00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
- 참석인원: 총 30명
 - 서울시(3) : 시장, 관광체육국장, 마케팅전략수석 / 市체육회(1) : 회장(강태선)
 - 市직장운동경기부(20) : 경기인 20명 (지도자1, 선수19) ※ 2명 불참(총22명 중)
 - 이스포츠선수단(3) : 국가대표 3명 (감독1, 선수2) ※ 파트너 도시 협약 체결(8.28)
 - ※ 배석(3) : 기획비서관, 체육정책과장, 市체육회 위탁사업부장
- 주요내용 :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단 격려 및 환담 진행

< 선수단 경기 결과 >

- ◆ 市직장운동경기부 : 금메달 2, 은메달 6, 동메달 2 / 11개 종목 22명 참가
 - 윤지수(금1, 동1), 김한솔(금), 서채현(은), 홍서인(은), 여자핸드볼팀(은), 민경호(동) 등
- ◆ 이스포츠선수단 :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1 / 4개 종목 19명 참가
 - 간담회 참석자(3) : 윤상훈(감독), 최영재(은), 박상철(은)

□ 진행순서

※ 사회 : 체육정책과장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05	5'	단체 사진촬영	시장님 및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전달	① 윤지수(펜싱칼)→시장님 ② 김한솔(체조복)→시체육회장
12:05~12:08	3'	영상 시청	참가자 전원
12:08~12:13	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2:13~12:16	3'	시장님 인사말씀	시장님
12:16~12:59	43'	오찬 및 간담(비공개)	시장님 및 참가자 전원
12:59~13:00	1'	마무리 말씀(비공개)	시장님

○ 市직장운동경기부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안 경 훈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철인3종 감독	
2	이 종 승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복싱 선수	
3	서 채 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클라이밍 선수	
4	박 은 선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축구 선수	
5	류 지 수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축구 선수	
6	이 혜 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자전거 선수	불참
7	민 경 호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자전거 선수	
8	강 지 수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선수	
9	김 현 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선수	
10	김 완 혁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철인3종 선수	
11	김 규 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철인3종 선수	
12	김 한 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체조 선수	
13	이 다 빈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선수	불참
14	윤 지 수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 선수	
15	홍 하 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 선수	
16	홍 서 인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 선수	
17	송 지 영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선수	
18	조 수 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선수	
19	정 진 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선수	
20	윤 예 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선수	
21	김 현 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브레이킹 선수	
22	전 지 예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브레이킹 선수	

○ E스포츠선수단 참여자

연번	성명	주요경력	비고
1	윤상훈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 감독	
2	최영재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3	박상철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붙임 3
서울시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 항저우 아시안게임 : 금메달 2, 은메달 6, 동메달 2

메 달	종 목	세부종목	성 명	비 고
금메달 (2)	펜싱	사브르	윤지수	개인
	체조	마루	김한솔	개인
은메달 (6)	태권도	+67kg	이다빈	개인
	태권도	혼성 단체	이다빈	
	자전거	스프린트	이혜진	단체
	펜싱	플러레	홍서인	단체
	핸드볼	단체전	정진희·윤예진· 조수연·송지영	
	산악	여자 콤파인	서채현	개인
동메달 (2)	자전거	단체추발	민경호	
	펜싱	사브르	윤지수·홍하윤	단체